

심의결정에 참여한 윤리위원

위원장

김지형 (변호사·전 대법관)

윤리위원

민병욱 (독자불만처리위원·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임종건 (전 서울경제 부회장)

장명국 (내일신문 사장)

이영만 (헤럴드경제 사장)

이선민 (조선일보 여론독자부장)

이진녕 (동아일보 논설위원)

황인혁 (매일경제 사회부 차장)

이가영 (중앙일보 정치부 차장)

배재정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영모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문화일보 광고국장)

변재운 (쿠키미디어 대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